

## 도립공원 40년 무등산 국립공원 된다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이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11일 광주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오는 20일 오후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 타당성 조사 완료 환경부 연내 지정

환경부는 공청회에 이어 관할 시·도지사(군수)의 의견 청취와 관련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등산을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며, 국립공원 추가 지정은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기존 국립공원 면적인 30.23km<sup>2</sup>보다 약 3배인 80~90km<sup>2</sup>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조사결과 무등산은 수달·구렁이 등 멸종위기종 11종을 포함한 229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가 우수하고, 해발 1100m 이상의 고지대에 서식대·입석대 등의 주상절리가 분포해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광주 도심에서 인접해 지난해 동안 650만명이 다녀가 북한산(850만명)에 이어 많은 탐방객이 찾은 곳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치권 '대선 앞으로'

## 새누리 비박계 반발 불구 경선출범 민주 대권후보 경선 준비기획단 발족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여야 모두 대선 경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당대회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비박(비박근혜)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당원들 개정을 하는 데 대한 이견이 터져나오는 등 경선전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비박계 주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경선을 관장하는 실무기구인 경선관리위원회의 출범을 강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선관리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경선

관리위는 국회의장 출신인 김수환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이날 확정됐지만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해온 친이(친이명박)계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위원의 확정을 스스로 유보하며 반발했다.

특히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대선주자 3인은 완전국민경선체제로 경선틀이 확정돼야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황우여 대표의 공정성을 점성화하고 나서 진풍이 불기까지 했다.

이해찬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민주통합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후보 경선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인선 협의에 들어가는 등 대선 경선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대선 경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직 사퇴를 명시한 당헌 조항을 수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이견도 터

져나오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 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산 3선인 조경태 의원이 이날 민생 회복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는 14일,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손 전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각계 인사 100여명을 초청,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후발주자인 조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내 유력 주자 중에서는 가장 빠른 출마 선언이다.

손 전 대표는 출마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진보, 지속가능한 복지'를 모토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성장 동력 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 문재인 고문도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고문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출마선언일 15~18일, 그중에서도 17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권법무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검토"

### 2만2000평 규모...민주·인권센터 건립 탄력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를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권 장관이 교도소 부지 3만2000여평(10만8423㎡) 가운데 1만평은 국가에서 쓸 수밖에 없

고, 나머지 부지에 2만2000평 정도를 무상 양여하는 것을 서로 추진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권 장관이 배석한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했다"며 "광주교도소 부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의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권 장관을 만나 "광주교도소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해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의견이 아직 남아 있어 광주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광주교도소를 오는 2014년까지 복구 삼각동 부지(28만7512㎡)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일대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알림



## 2012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한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6월 22·23·24일 광주 염주체육관



세계 배구강호들이 격돌하는 2012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가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한국과 함께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이 포진한 C조는 각팀 모두 강력한 서브와 고타점 스파이크, 철벽 블로킹으로 무장한 강팀들로 남자배구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매년 월드리그 남자배구대회를 유치해온 광주일보와 광주시 배구협회는 특히 올해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내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해오던 이 대회를 단독유치 했으며 이에 따라 참가 4개국 풀리그 12경기가 모두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회기간 전 경기는 MBC Sports 채널로 생중계 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주최: FIVB(국제배구연맹)
- 주관: 대한배구협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일보사
- 주관방송사: MBC Sports
- 후원: 광주광역시, Hyundai Capital, 문화체육관광부

- 6.22(금)  
14:00 대한민국 vs 프랑스  
16:30 이탈리아 vs 미국
- 6.23(토)  
14:00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16:30 프랑스 vs 미국
- 6.24(일)  
14:00 대한민국 vs 미국  
16:30 프랑스 vs 이탈리아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백조의 호수'**  
7.6~7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220-0541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 062)605-1112, 1063

공업보국의 길!  
60년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60<sup>th</sup> Anniversary  
1952 - 2012

